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거품 경제(Bubble Economy). 경기 국면이 실물 부문의 움직임과 괴리되어 거품처럼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거나 팽창된 경기 상태. 즉, 가격이 내재된 가치를 넘어서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용어로 그 첫 시작은 꽃 한 송이였다. 바로 역사상 최초의 거품 경제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튤립 파동(Tulip mania)으로 단지 꽃에 불과한 튤립이 어떻게 현대에 중요한 경제 현상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을까?

글 편집실

꽃으로 피어난 거품 경제 — 튤립 파동

Tulip mania



튤립 파동을 다룬 헨드릭 포크의 '플로라와 바보들의 수레'



안 브뤼헬 2세의
'튤립매니아(tulip mania)'

경제적 호황과 맞물린 투자 대상, 튤립

튤립하면 떠오르는 나라인 네덜란드. 끝없이 펼쳐진 튤립농장과 색색의 풍차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이 금세 머릿속으로 펼쳐질 정도로 튤립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튤립은 유럽에 없던 꽃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튤립의 고향은 어디일까? 바로 오스만 제국으로 현재의 터키다. 그리고 튤립 파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튤립이 처음 네덜란드에 소개된 것은 16세기 중반 무렵으로 이 시기의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받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암스테르담이 금융중심지가 되어 금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독일의 30년 전쟁 여파로 체코 등의 직물 산업이 붕괴되어 반사적으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때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자본이 몰려들면서 사람들은 투자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이때 사람들의 눈에 띈 것이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 들어온 신비의 꽃, 튤립이었다.

사실 처음부터 튤립이 투자 대상은 아니었다. 당시 튤립은 동방에서 온 희귀하고 이국적인 꽃으로 원예가나 애호가, 돈 많은 귀족들이 부와 교양을 과시하기 위해 가꾸는 고급 정원의 컬렉션이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희귀한 점박이 모양이 있는 몇 종류의 튤립들이 그 소수의 매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희귀종인 만큼 짧은 기간에 양을 늘리기도 어려워 잘 키운 희귀종의 알뿌리는 그 자체로 큰돈이 되었다. 그러자 희귀종 튤립의 알뿌리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여기에 당시 넘쳐나던 자본이 몰리면서 처음에는 애호가들의 취미에 불과하던 튤립 알뿌리가 가격 상승과 더불어 일확천금의 대상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저 마당에서 소소하게 꽃을 키우던 시민들까지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튤립 재배에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한다.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영원한 황제’라는 뜻의 셴퍼 아우구스투스(Semper Augustus)라는 튜립은 바이러스로 인한 변종으로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튜립이다.

튜립 투자 광풍과 거품 경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튜립 투자 열풍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1630년대 시작된 ‘선물 계약’이다. 선물 계약이란 미래의 특정 시점을 인수·인도일로 지정해 특정한 기초 자산을 정한 가격에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튜립의 경우 일반 투자 품목과 달리 꽃을 피우야 사고팔 수가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꽃을 피우기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알뿌리인 구근을 먼저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즉, ‘꽃이 피는 미래 시기에 특정 금액으로 튜립을 사겠다’는 선물 계약 자체를 사고파는 거래가 성행하게 된 것이고, 덕분에 튜립 뿌리를 다 키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해져 튜립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흐름에 따라 1636년에는 튜립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로테르담, 할렘, 레이든, 알크마, 흐른 등 주요 대도시에 개설된다. 그러던 중 1936년 12월 튜립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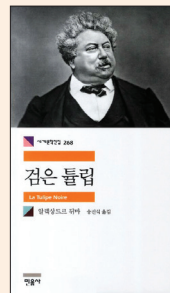
당시 가장 비쌌던 희귀종 튜립의 구근 하나 가격은 2500길더에 거래되었는데, 이 금액은 돼지 8마리, 황소 4마리, 양 12마리, 밀 24톤, 와인 2통, 맥주 600리터, 버터 2톤, 치즈 450킬로그램, 은 술잔, 옷감 108킬로그램, 침대 세트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였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1937년 2월이 되면서 가격이 갑자기 하락세로 돌

변하기 시작했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것이다. 급격하게 폭등했던 가격은 다시 급격하게 폭락했다. 지속적인 하락세 끝에 단 4개월 만에 최고점에서 95~99%가 빠졌고 투자자들은 본전의 1~5%만 건졌다. 사람들의 어음은 부도났고 채무자들은 넘쳐났고 튜립 거래소는 가격을 지키기 위해 가짜 경매까지 꾸렸지만 모든 것은 거품처럼 소리 없이 꺼져버렸다. 네덜란드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자 네덜란드 정부는 1636년 11월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이후에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생산자에게 계약 금액의 10%를 물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제대로 되지는 못했다. 결국 이 튜립 파동을 기점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던 네덜란드는 언어 발생한 유럽 내 패권 다툼, 영란전쟁 등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대공황기에 들어서게 된다.

튜립 파동이 현대적인 개념의 경제학에서 거품 경제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당시의 튜립 가격은 합리적이었으며 이 튜립 파동 자체가 네덜란드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했다고 하는 의견들도 많다. 다만 튜립 파동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튜립처럼 흔하고

오래 가지 않는 대상에 돈이 몰린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튜립의 꽃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투자와 거래 그 자체가 주목적이 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물 계약, 옵션 계약 등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튜립 파동은 비록 거품으로 끝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

튜립 파동을 소재로 한 작품들



책 「검은 튜립」
알렉상드르 뒤마 저 | 민음사

『삼총사』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유명한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아름다운 튜립을 선발하는 대회와 완벽한 ‘검은 튜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탐욕과 음모, 고난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튜립 투자 광풍이 일어 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희귀한 튜립에 대한 열망에서 발생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검은 튜립’에의 욕망과 탐욕 등을 작가 특유의 문체로 그려낸다.



영화 <튜립 피버(Tulip Fever)>
2017년 | 알리시아 비칸데르, 데인 드한출연

튜립 투자 광풍이 불었던 1630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튜립으로 한 가족과 한 남자가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동명의 책을 원작으로 한다. 고아로 자란 한 소녀가 부잣집에 매매혼으로 팔려가 살던 어느 날, 남편의 초청으로 부부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 방문한 초상화 화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집안이 튜립 투자 광풍을 겪게 되면서 겪게 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당시 네덜란드를 세심하게 고증한 풍경을 배경삼아 펼쳐진다.

튜립 파동 당시 튜립 가격지수(1636-1637)

